

미로쿠지(彌勒寺, 미륵사) 절(彌勒寺, 미륵사) 터

수세기 동안 우사 신궁 경내에 서 있던 미로쿠지(彌勒寺, 미륵사) 절(彌勒寺, 미륵사)의 흔적은 구레하시 다리와 야사카 신사 사이에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신사와 사찰이 융합된 종교 시설이었던 우사 신궁에서 오랫동안 가장 중요한 사찰로 여겨졌던 미로쿠지 절은 황실과 귀족, 그리고 무사 가문의 지원을 받으며 매우 강력한 정치적, 경제적 권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미로쿠지 절은 광대한 쇼엔(莊園, 사찰이 직접 영유하거나 지배하는 땅)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영향력은 규슈뿐만 아니라 일본 전국에 미칠 정도였습니다. 역사적 기록과 지도를 살펴보면 미로쿠지 절의 경내는 현재의 서쪽 참배길 양쪽으로 펼쳐지고 사당, 탑, 슈쿠보(宿坊, 승려나 참배자를 위한 숙박시설) 등 수십 채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금당(본당)에는 약과 치유의 부처인 약사여래가, 강당에는 먼 미래에 나타날 다음 세상의 부처인 미륵보살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우사 신궁 내에서 가장 중요한 사찰

미로쿠지 절의 전신은 미로쿠젠인(彌勒禪院, 미륵선원)이라 불리는 사원으로, 725년 우사 신궁 최초의 신전이 오구라산에 지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은 738년에 오구라산과 요리모강 사이의 평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곧 미로쿠지 절은 신궁사(신사와 밀접하게 연결된 사원으로 보통 그 신사의 경내 또는 신사의 주변부에 위치함)의 가장 초기 예 중 하나로 발전했습니다. 이렇게 우사 신궁은 8세기경까지 신도와 불교가 융합된 신앙 형태(신불습합)를 반영한 종교 시설이 되었습니다. 미로쿠지 절은 우사 신궁에서 열리는 의식 등에 승려를 파견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신불습합의 대표적인 사찰로 발전했고 그에 따른 강력한 권력 또한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11세기 무렵 우사 신궁과 함께 규슈 지역 최대의 장원 영주가 된 미로쿠지 절은 독자적으로 소유한 장대한 쇼엔을 바탕으로 조금씩 우사 신궁에서 독립해 나갔지만, 제례(신토의 의식)와 법요(불교의 의식) 등을 통해 우사 신궁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이어나갔습니다.

미로쿠지 절의 권력 상실과 종말

12세기에 헤이시(다이아 가문)와 겐지(미나모토 가문) 사이에 치열한 권력 투쟁이 벌어지자, 우사 신궁의 공사는 헤이시에 가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로쿠지 절은 우사 신궁과 함께 1184년 불에 타 파괴되었고 1년 뒤인 1185년에는 헤이시가 패배했습니다. 그 후 미로쿠지 절을 포함한 우사 신궁은 다시 재건되었지만, 미로쿠지 절의 권력은 이미 쇠퇴하기 시작한 후였습니다. 미로쿠지 절이 소유했던 땅이 점점 사라지고 경내에 있던 건물의 수도 점차 줄어들자, 19세기 중반에 이르러서는 더이상 재건을 시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1868년에는 메이지 정부가 신불판연령(神佛判然令)을 내리면서 1871년까지 모든 불교 건축물 등이 우사 신궁에서 배제되었습니다. 과거 미로쿠지 절의 경내에 해당하던 자리는 현재 우사 신궁의 사무소와 칙사 재관, 그리고 아름다운 정원이 대신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로쿠지 절의 과거 영광을 떠올릴 수 있는 것이라고는 초석 하나만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미로쿠지 절의 가장 귀중한 불상은 안전하게 보존되었습니다. 현재 미륵불좌상은 인근의 고쿠라쿠지 절(極樂寺)에, 약사여래좌상은 강 건너편에 있는 다이젠지 절(大善寺)에 각각 안치되어 있습니다.